

황토현 전봉준장군 동상 재건립한다

정읍시, 친일작가 동상 철거
국민 성금 모아 기념물 설치
“동학농민군 시대정신 담을 것”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 동상. 이 동상은 친일작가 작품이라는 지적에 따라 철거한 뒤 동학농민군의 시대정신을 담아 재건립하기로 했다. (정읍시 제공)

전이 중심인 동학농민군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교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황토현 전승지를 역사성과 예술성이 갖춰진 국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21세기 민족문화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읍시는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1987년 10월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제작했다.

동상과 배경 부조 시설물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높이 6.4m, 좌대 3.7m, 형상 3.7m 규모로 건립됐다.

김경승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까닭에 동학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줄곧 철거를 요구했다.

유진섭 시장은 “시는 철저한 역사적 고증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어긋나는 기념사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동상 재건립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더불어 전봉준 장군이 정읍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는 지난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한 부서협업 회의를 열어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부서간 협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수원 조기 건립 지원

부서협업회의의 다양한 지원책 논의

정읍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수원’의 조기 건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읍시는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제반사항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8일 부서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승기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건설과와 도시재생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6개 부서가 참여했다.

연수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의 소요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전문화된 자원과 노하우를 결합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응하며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하자는 의지도 드러났다.

우선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역과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사전이행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또 공영버스 노선 신설, 기반시설(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설치, 건립부지에 대한 성토, 월령소하천 활용방법 등에 대해 추진계획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승기 부시장은 “협업과 소통은 조직 문화를 강화시키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어려게 유지한 연수원인 만큼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NPS)은 지난해 7월 전북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수원 건립 후보지를 제안했고 11개 시군으로부터 21개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 중 면밀한 검토 끝에 지난해 11월 내장산 문화관광 인근 후보지를 연수원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제방 정비·수변 개발...순창군, 120대 중점관리 사업 추진

순창군이 민선 7기 추진할 12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남섭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한 ‘120대 중점관리 사업추진단’을 발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부서별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으로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 출범한 미래발전기획단 위원들의 자문을 반영한 12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발굴, 확정했다.

지난 몇 년간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성 확보 문제와 유지비 최소화, 운영 효율성 등의 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방정비에 대한 사업안도 마련된다.

섬진강을 활용한 수변개발과 먹거리촌 조성, 예술인 마을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포함된다.

국가예산 확보 성공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농촌협약사업, 순창읍 도시재생,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등도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순창읍.

무엇보다 순창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투자선도지구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한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수 순창군수는 “12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순창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수시로 각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해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익산시, 65억원 투입 수소자동차 180대 보급

대당 구매비 절반 3650만원 지원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6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소자동차 180대의 구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전체 구매비의 절반 가량인 대당

3650만원이다. 개인은 1대, 법인과 단체는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0일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단체 등으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택시 또는 경유차의 대

체 구매나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20대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은 20일부터 6월 말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제2산업단지 인근에 익산지역 첫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올해 187억 들여 도로환경 개선

평촌~강기·부석~오촌 확포장
마을 진입도로 7개 노선 확장

남원시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남원시는 올해 읍면지역의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에 72억원, 마을진입로 개선에 26억원, 도로유지관리에 89억원 등 시민의 안전성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환경 조성에 187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간 연계성을 높이는 읍면지역 시도와 농어촌도로 10개 지구사업은 이백에서 운봉으로 가는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송동면과 수지면을 연결하는 부석~오촌 간 도로 확포장

등이 추진돼 수송·물류비 절감과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을 높인다.

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인월 장평마을과 운봉 장동마을 등 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수지 호곡 등 3개 지구 선형개선 사업, 재난·재해를 대비한 12개소 시가지 주요 교량 보수·보강사업, 교통사고를 예방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법정도로 관리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망 개선 및 확충,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